

현대시교육과 성장시(成長詩)*

- 기형도, 이상, 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

남 민 우**

〈차 례〉

1. 성장시의 범주 설정 필요성
2. 성장시의 구조 - 정신적 각성의 서사적 표현
 - 2.1. 성장시 논의의 출발점 : 奇亨度의 「위험한 家系」 · 1969,
 - 2.2. 성장시의 '주인공'과 '서술주체'의 특성
 - 2.3. 성장의 각성 동인 : 격리 불안
 - 2.4. 성장의 假終結점 : 가족의식, 정체성, '겨울'의 시간 의식
 - 2.5. 미완결형식으로서의 성장시 : 성장의 내적 모순 - 동일시와 거부
3. 성장시의 변증법 - 동일시와 거부의 시적 변용
 - 3.1. 성장의 거부 : 李箱 시의 성장시적 특성
 - 3.2. 성장과 동일시 : 尹東柱 시의 성장시적 특성
4. 성장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1. 성장시의 범주 설정 필요성

문학 교실에서 학습되는 시들이 학습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¹⁾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교재로 제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24회 학술발표대회(2003.5.17)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 정재찬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성대학교 강사(minful@freechal.com)

시되는 시들의 내용이 학습자의 체험 영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문학사적으로 주목되어 온 1930년대의 시들이 대부분인 현재의 상황은 문학사 교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시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직결될 수 있는, 공감 가능한 시 제재를 제시해 줄 필요성을 부정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시 제재 선정 관점과는 다른 입장에서 '성장시(成長詩)'의 범주 설정 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사 장르에서의 '성장 소설'처럼 시의 영역에서도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발전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작품을 필자는 성장시로 규정하고자 한다. 성장시는 정신적 성장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로서, 본능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존재가 인지 및 정서의 발달에 따라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가'라는 가족내적·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들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시 제재는 순수시, 민족시, 모더니즘시, 리얼리즘시 등의 사조(思潮)적 특질이 부각된 채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제시 방식은 해당 시들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을 학습자들의 내면 세계와의 유관성을 억압한다고 판단된다. 학습자들은 그러한 시들을 학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내면적인 것'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즉, 학습자들의 실제적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언급하듯, 개별적 자아가 정립되는 초기 국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거울 단계'이다. 살아가는 전 과정 속에서 자아, 생명, 혹은 의미를 찾는 어린아이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에 자기애적인 리비도를 부여한다.²⁾ 어린아이들이 거울 앞에서 경험하는 '자기동일시

1) 윤여탁 외,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제2판), 태학사, 2002, pp.277-280.

2) 아니카 르메르(이미션 옴김),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p.258.

의 변증법적 과정이 주체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소외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러한 과정이 암시해주는 바는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자기와 유사한 것을 보여주는 것에는 강렬한 정신적 힘을 투사한다는 점이다. 성장시는 그런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라 하겠다.

성장시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문학사에서 성장소설에 대한 논의조차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사에서 '성장소설(혹은 발전소설 Entwicklungsroman)' 또는 '교양소설 Bildungsroman'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생산된 양식³⁾이라고 언급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성장소설이 문학교육의 제재로 활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성장소설이라 논해진 작품으로 현재 국어 및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윤홍길의 『장마』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이 대표적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작품이 교재로 제시된 일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또한 이 작품들이 성장소설적 특징을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장마』는 전쟁의 비극을 다룬 소설로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4·19 전후의 사회 비판적 소설로서 강조되면서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장소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민족적 체험이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 성격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문학교육의 실천적 국면에서 성장소설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성장소설⁵⁾은 '한 개인의 성장과 자각'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다. 성

- 3) 김병익,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 『세계의문학』, 1981. 여름호 : 김운식, 「교양소설의 본질 - 루카치의 소설론 비판」,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 —, 「부성원리의 형식」, 『운명과 형식』, 숲, 1992 : 황국명,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정치적 환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5집, 1999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담론 특성」, 『한국언어문학』 제44집, 2000.
- 4) 문학교육연구 영역에서 성장소설의 성격 등에 대한 논의로는 최인자, 「성장소설의 문화적 해석」, 『문학과논리』 제5호, 1995(「성장소설의 '가죽' 이데올로기 비평」,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2001)를 들 수 있다.
- 5) 이 글에서는 김병익의 논의에서처럼 성장소설과 '교양소설'을 동일하게 보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엄밀한 관점에서 그 둘은 상이한 것으로 논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

장소설은 정식으로 '成人式 initiation'을 주요한 계기로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정신적 각성을 통한 성인화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각성의 계기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각각의 작품들이 분기(分岐)된다고 하겠다. 기형도, 이상, 율동주의 시들에 대한 제2, 3장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성장시 역시 각성의 계기에 따라 다양한 편폭을 보인다.

이러한 성장소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아 못지 않게 개인적 자아가 허용되는 문화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살펴 보면, 유교 문화의 집단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개인적 자아가 용인되지 않았기에, 성장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드물게 나타났다고 논의되고 있다.⁶⁾ 물론 이러한 결여를, "한국 소설에는 성장소설의 전통이 박약하다. 철드는 것, 다시 말하면 기성사회와의 타협으로 끝나는 독일식 성장소설이 생산되기에는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우리 역사의 엄중함을 돌아볼 때 한국의 토양은 비옥하지 못하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성장소설의 결핍이 우리 문학의 건강성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⁷⁾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정신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문학교육의 입장에서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발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성장소설은

계는 독일 문화사와 깊은 연관 하에 논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교양소설'이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정점으로 하는 독일적 소산, 독일 시민사회 형성기의 문화적 소산이란 맥만만을 연상케 하는 반면 성장소설이란 용어는 '개인의 성장'이란 점을 좀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교양소설', 성장소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발전소설' '교육소설' '형성소설' 등에 대한 논의는 김연순, 「독일교양소설연구(1) - 교양소설의 본질」, 『독어독문학』 제17호, 1982 참고.

6) 김병익, 앞의 글.

7) 최원식, 『아버지의 역사에서 이들의 현실로』, 김하기 『항로 없는 비행』 해설, 창작과 비평사, 1993, p.304. 또한 김윤식은 성장소설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후진적 상태에 있던 독일의 사회경제사적 배경에 연유하여 나온 양식이란 점, 근대화에 앞서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전혀 교양소설을 소설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윤식, 앞의 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성장소설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뚜렷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로서의 국어과의 성격을 논하면서, 그 첫머리에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민족적 차원의 요구만이 전경화되어 있다. 국어교육의 제도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는 논리다. 이것은 성장소설의 생산을 불가능하게 했던, 집단적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논리와 유사하다.

국어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지니는 제도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 ‘全人的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본래의 목표 및 현대사회의 다원적 가치⁹⁾를 고려하면, 아울러 문학의 특성에 대한 김수영(金洙暎)의 견해,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¹⁰⁾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이나 전통을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는 교육적 방법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언급되는 ‘개인적 성장’¹¹⁾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징을 내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성장소설은 주목을 요한다.

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9) 조화태, 『포스트모던 철학과 교육의 새로운 비전, 강영혜 외,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4, p.35에서는 “교육에 대한 규범적 논의의 활성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주관적 가치의 다양성의 강조이기도 하다. 개인적 가치의 용인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개인들은 서로의 다양한 가치 앞에 당혹함으로써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규범과 합의의 갈망하게 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 힘으로서의 시의 존재」, 『김수영전집2』, 민음사, 1981, pp.253-254.

1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0.

‘시가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도 민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장소설은 개인적 성장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성장시의 범주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시 역시 소설 못지 않게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갈래이기 때문이다.¹²⁾

이런 관점에서 주목되는 대상들이 기형도(奇亨度), 이상(李箱), 윤동주(尹東柱)의 시들이다. 세 시인들은 모두 28, 9세에 요절(夭折)했다는 점, 그런 까닭에 각 개인의 실존적 차원에서 ‘청년적 경험 세계’를 벗어 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 공통점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세 시인들은 내면 세계의 탐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기형도의 시는 비극적 세계관을 지닌 내면 세계의 형상화¹³⁾를 보여주었으며, 이상은 초현실주의적 신심리주의적 창작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무의식적 세계까지 탐구한 존재¹⁴⁾이며, 윤동주는 죄의식에 기초하여 내면 세계를 형상화했다¹⁵⁾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자체가 시인의 주관적 내면 세계의 표출이란 점에서, 모든 시

12) 김윤식, 「문학장르와 人類史의 의미 - 서정양식과 서사양식의 지향점」,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p.496. “수많은 개인이 완전한 자각 상태로 꽃핀다면, 그 꽃다발의 힘이나 아름다움은 개인을 나사못으로 하여 만든 객관적이고 전체성을 띤 장대한 서사시적 세계와 견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논법은 아시아적 세계에 있어서라면, 민중이 개인으로 자각하는 단계와, 민중이 개인으로 자각하지 못하면서도 공동체를 이룬 단계에 각각 대응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 개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단계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경지에는 인류는 아직도 도달된 바 없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쪽이나 같다. 장편도 서정시도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힘쓰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13) 이경호, 「기형도의 시세계 연구자료 읽기」,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솔, 1994.

14)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리얼리즘의 擴大와 深化」, 『조선일보』, 1936.11.31-12.7.

15) 김용직, 「암흑기의 十字架-윤동주론」, 『한국현대시사2』, 한국문연, 1996. 김용직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자기 응시 및 성찰에 의한 내면 세계의 형상화는 윤동주에 와서야 가능했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 윤동주론의 대부분이 ‘영원한 청년 시인’, ‘고독한 내면 응시’ 등을 핵심적인 용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평가가 정당함을 알 수 있다.

가 이러한 특질을 지니고 있겠으나, 세 시인의 내면 세계는 특히 '유년 기로부터 청년적 경험 세계까지의 내면 풍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들의 시에는 어른, 즉 아버지의 입장에서 세상에 대해 발언하는 시적 화자가 드물게 나타난다. 김억(金億)이 이상의 시를 혹평하면서 '어린애의, 의미조차를 분명히 알 수 없는 더듬이말에 지나지 않는다'¹⁶⁾고 한 것은 재음미될 만하다. 이들이 보여준 유년기로부터 청년적 경험 세계까지의 내면이란 곧 인간의 성장 과정 상의 내면 풍경이라 하겠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 · 1969」를 성장시의 원형적 구조를 보여주는 시로서 규정, 성장시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 및 운동주의 시들이 지니는 성장시적 특성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2. 성장시의 구조 - 정신적 각성의 서사적 표현

실상, '학습자들의 공감 획득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천적 국면에서는 동시대 시작품의 양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시각에서 문학교육의 새로운 교육 대상으로 주목되는 시인 중의 하나가 기형도(奇亨度, 1960-1989)이다. 「엄마 걱정」이 수능에 지문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외 「빈집」이나 「겨울판화1」, 「식목제」 등 기타의 시들이 교과서는 물론 각종의 문학교재에 등장하고 있다.

90년대를 대학생으로 보낸 필자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1989년 죽기 직전까지 쓰여진 기형도의 문학은 50년대 전후 세대에게 있어서 제일의적(第一義的) 모사(模寫) 대상이었던 이상(李箱)¹⁸⁾, 70년대의 문

16) 김억, 「시는 機智가 아니다」, 『매일신보』, 1939.4.11.

17) 이에 대한 양적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윤여탁, 「교재 구성을 위한 현대시 정전」,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 2003 : 박기범,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학교 문학교육과 문학 교과서의 재조명』, 한국문학교육학회 제29회 학술대회자료집, 2002.

18) 고은, 『이상평전』, 창하, 1980, p.11.

학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폭포처럼 겹도 없이 메아리치게 한 김수영(金洙暎) 신화¹⁹⁾에 비견될 수 있는, 수많은 에피고넨들을 양산해 온 90년대 청년들의 제일의적 모사 대상 중 하나였다. 필자의 독서 경험 세계에서 그는 당대의 젊은이들의 ‘말이자 입’이었다고 추억된다. 그의 유일한 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의 표제시는 정치사회적 불안의 지속 및 대학 공간의 황폐함이 편만(遍滿)시킨 ‘불안’과 ‘무언가를 말할 수 없음의 고통’의 시적 변용이었으며, 그러한 ‘불안’을 읽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와 위안을 준 문학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동시대 청년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은 그를 위한 인터넷 문학카페가 다른 시인들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이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기형도를 위한 문학카페의 회원들은 “내 안에는 언제나 기형도가 있다”고 선언²⁰⁾하기까지 한다. 이런 점에서 기형도의 시가 문학 교육의 실천적 국면에서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의 시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문학교육적 논의가 부재한 채로 교육된다는 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²¹⁾ 이후에서는 기형도의 시 「위험한 家系 · 1969」가 성장시의 원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의 시가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2.1. 성장시 논의의 출발점 :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 · 1969』

1986년 『시운동』 제6집에 발표된 이 시는 1960년생인 시인 자신의 유년기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산문시로서 시의 시간적 배경은 1969년의 늦봄(그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19) 김윤식, 「모더니즘에서 노래에 이른 길 - 金洙暎論」(『세계의문학』 1982년 겨울), 『한국현대시론비판』(중판, 일지사, 1985, p.174.

20) 대표적인 기형도 문학카페로 “<http://bbs.itcom.com/poet/index.php>”(입 속의 검은 잎)을 들 수 있다. 본문에 인용된 독자의 글은 이 카페 회원 중 하나의 글이다.

21) 물론 김상욱,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재판), 푸른나무, 1998을 참고할 수 있으나, 그의 논의가 뚜렷하게 문학교육적 관점에서 기형도의 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제1장)에서부터 그해 겨울(‘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제6장)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우선, 이 시는 성장소설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각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성장소설은 ‘어떤 인간이 일정한 삶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혼의 발전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²²⁾ 인간의 자기형성에 대한 독특한 기대나 해석, 혼의 탐구에 해당하는 성장소설처럼 이 시의 ‘나’는 발달학적 관점²³⁾에서 볼 때, 생물학적 본능의 차원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획득을 보여주고 있다. 발달학적 관점에 의하면, ‘성장’이란 한 개인이 본능적 차원에서 인지 및 정서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성장 과정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가 유년기 화자를 통해 재구성한 것은 이러한 성장 체험에 해당한다.

둘째로, 이 시는 서정시 일반이 두드러지게 지니는 순간형식으로서의 시간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서사 장르 일반이 지니고 있는 완결형식에 가까운 시간의식을 지니고 있다.²⁴⁾ 서정시의 본질적 시제

22) 김윤식, 『교양소설의 본질』, 앞의 책, p.276.

23) 루이스 브래거(홍강의·이영식 옮김),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1974(1998). 여기서 루이스 브래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지심리학 및 인류학에서의 인간 발달에 대한 관점들을 융합시켜 ‘발달학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발달의 개념은 “인생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 항상 변하며,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한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리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개념의 정립은 19세기 헤겔의 철학 및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의해서이며,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 새롭게 변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발달’ 개념은 프로이트의 정신성적(精神性的, psychosexual) 발달 모형 및 에릭슨의 정신사회적(psychosocial) 모형, 피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에 의해 현대화되었는데, ‘발달’은 ‘자기 중심성’(이것이 확대된 형태가 자만족 중심주의, 지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성인 중심주의 등이다), 즉 본능의 단계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은 곧 ‘본능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에 이르는 도정’에 해당한다. 필자가 ‘성장’에 대해 지니는 기본적 관점은 이에 터하고 있다.

는 현재시제라 할 수 있다. 서정시는 시인이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순수한 현재는 하나의 행위에 관한 시간의식을 간직하면서도 한 행위의 인상을 창조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사는 가상적 과거 경험의 종합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시제나 완료시제가 본질적일 수밖에 없다. 이 시는 서정시적 시제를 활용하고 있다기보다는, 1969년의 자기 경험에 대한 종합적 기억에 의한 서사적 시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서술 구조를 지닌 서술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1969년의 자기 경험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경험이 정신적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을 순간적 인상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서정시, 즉 성장시로 볼 수 있다.

이 시의 주인공인 '나'가 어떤 계기에 의해 정신적 자각에 이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 시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이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남쪽불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이젠 그 애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에 등을 기댄 채 큰누이가 소리질렀다. 그런데 올해에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나는 공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주세요. 스펀지마다 승승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옮겨올은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오실 거구. 風病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잖아요. 미늘을 까던 작은누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이마 위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가만히 고쳐 매셨다. - 「위험한 家系 · 1969」 제1장(‘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2.2. 성장시의 ‘주인공’과 ‘서술주체’의 특성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밝히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아버지의 風病이 발생한 이후의 가족

내 분위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년기의 '나'는 아버지의 風病으로 인해 가족사적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 불행을 감내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나'는 '잠바 하나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자기의 욕망에 갇힌 본능적·자기 중심적 존재에 머물러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에서 서술주체와 '나'와의 관계이다. 서술주체는 이 시를 쓰고 있는 1986년 어느 시기의 기형도의 정신 세계에 가까운 주체이다. 서술주체는 1969년의 사건 전부를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 종합적 기억의 주체이다. 이에 비해, '나'는 1969년의 기형도의 정신 세계에 가까운 주체이다. '나'는 아직 1969년을 경험하지 못한 주체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그해 늦봄 아버지는 ~ 쓰러지셨다.'고 '나'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발화 가능성은 서술주체에게만 열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 개체로서 '나'와 서술주체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도 분명하다. 둘 모두 기형도인 것이다. 굳이 이렇게 서술주체와 '나'와의 구별을 언급하는 것은, 이 시에는 '본능적 차원'에 갇힌 '나'의 의식과, '나'가 경험한 것을 종합적으로 기억하며 재구성하는 '서술주체'의 의식이라는 두 개의 의식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시의 이해에 관건이 된다.

서술주체가 자기 자신이기도 한 과거의 '나'의 본능적 차원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또한 자기 가족의 가난했던 과거를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한국문화에 있어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 김병익은 70년대 이후 성장소설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⁵⁾ 이런 변화는 우리 문화에 대한 성찰을 제기하고 그 위상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의 소산이라 한다. 그것은 성장소설의 작가 개인이 이제껏 감추어 온 위선과 오류를 스스로 반성하고 깨뜨려 보여준다는 자기 신뢰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 문화와 자신의 세계와의 거리를 정직하게 들

25) 김병익, 앞의 글, p.78.

여다보는 성실성의 드러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장소설 또는 성장시는 자기 자신, 자기 문화, 자기 민족의 약점까지도 숨김 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의 유무를 알려주는 부표(浮標)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²⁶⁾

이 시에서 '나'의 본능적 욕망의 솔직한 고백은 실상 1986년의 성인에 가까운 기형도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어린애가 다 뭐 그렇지!' 하면서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어린애를 상대로 할 때의 이야기이지 성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 또는 자기 가족의 남루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비유적 의미에서 취기(醉氣)에 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두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몇몇에게만 가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관례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스스럼없이 말해졌다는 것은, 작가 기형도가 자신에 대한 위선적 장식을 벗어버림으로써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시가 성장시임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성장소설은 필연적으로 '칠었던 과거'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윤홍길의 『장마』에서 '나(동만)'가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는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짓(할머니의 비난)'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것이 작품 속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장소설일 수가 없다. 이 시에서 아버지가 風病에 쓰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바 하나 사주세요.'하는 '나'가 없다면,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에게 '이젠 그 애긴 그만하세요.'하고 소리지르는 큰누이가 없다면, '風病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잖아요.'하는 비아냥거리는 작은누이가 없다면, 이 시는 성장시가 될 수 없

26) 필자는 이런 관점이 문학교육에 있어서 '친일시(親日詩)' 교육의 일방향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친일시는 우리 민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치부에 해당할 터인바, 문학 교재 선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검열의 논리에 따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 놓고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성장시를 포함한 성장문학의 교육적 관점은 넓게는 이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있을 것이다.

작가 기형도의 자기 과거에 대한 정직한 반성이 선언된 이 부분은 또한 발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습' 단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능은 다양해서 차라리 '본능적 영역(instrinctual boundaries)'이라 부르는 것이 적당한데, 인간의 본능적 영역이 지니는 특징은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²⁷⁾ 인간의 본능적 영역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 내지 재적응하는 개체에 가까운 것이며, 이러한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것은 학습이나 경험이다. 중요한 점은 이 학습이나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정 체계란 점이다.²⁸⁾ 이러한 감정 체계는 개인의 내적인 생리적 과정, 개인의 의식적 혹은 반의식적 경험, 행동 표현으로 구성되며, 특히 감정 상태에 따라 나오는 특이한 소리나 행동, 얼굴 표정으로 구성되는 행동 표현은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본능'에 해당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회적 본능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공포·불안·공격성·호기심·놀이 등이다. 인간은 이러한 사회적 본능을 에너지 삼아 성장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존재라 하겠다.

2.3. 성장의 각성 동인(覺醒動因) : 격리 불안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독립성과 의존성, 쾌락과 포기, 분노와 조절이라는 인간생활의 핵심적 갈등을 유발한다. 이 시가 보여주는 인간 학습의 동인(動因)으로서의 핵심적 본능은 바로 '불안', 그 중에서도 '격리 불안'에 해당한다. 제1장은 '나'가 앞으로 두 가지의 격리 불안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첫째로, 어머니와의 격리 불안이 나타난다. 어머니는 '그래도 옮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라고 응답한다.

27) 루이스 브레저(홍강의·이영식 옮김), 앞의 책, p.39.

28) 학습과 경험은 인간 정신의 발달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감정 체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서적 반응을 총체적으로 유발하는 문학 작품은 그 성질상 인간의 발달에 직접적인 동인(動因)임을 말해준다.

이 응답은 '나'에겐 무참한 것이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란 무엇인가? 아이에게 어머니는 곧 자기이다. 자기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여야 하며 그녀의 부재는 불안을 낳는다. 어머니는 또한 아이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머니 이미지²⁹⁾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어머니는 그러한 이미지를 벗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격리될 것임이 암시되고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어머니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 실상은 끔찍한 어머니 이미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어머니의 양가적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나 라깡 모두가 강조하듯이, 이유(離乳) 콤플렉스를 아이에게 형성 시킴으로써 심지어는 '식인적(食人的) 환상'이라는 악몽³⁰⁾을 아이에게 겪게 하는 존재란 점이다. 어머니로부터의 격리는 이 이중적 어머니에

29) 달린 에반스(김종주 외 옮김),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이 글에서 이후 언급될 '아버지', '어머니'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하였다. 라깡은 아버지/어머니 모두 상징적/상상적/실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의미를 논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서구적 문화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윤식의 「부성의 원리」를 참고하였다.

30) '식인적 환상'이란 어머니에 의해 아이가 삼켜지는 듯한 공포감을 의미한다. Bowlby에 의하면, "어린아이에게서 강력하고 폭력적인 증오를 경험하는 데 모성 상과의 격리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루이스 브레저(홍강의·이영식 옮김), 앞의 책, p.144. 이유(離乳)의 체험은 아이에게 공포감은 물론 증오감도 형성하여, 엄마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 반응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증오는 또한 엄마와의 재결합을 위한 영원한 정신적 에너지로도 작용한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바로 이런 역동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목이 「엄마 걱정」이란 사실이다. 유년기적 의식이라면 그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머니의 부재가 낳는 불안만을 토로해야 할 터이지만, 그러한 불안과 함께 엄마를 '걱정'하는 의식이 동시에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 역시 「위험한 가계」1969, 처럼 서술 주체와 주인공이 분리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또한 정신 성장 과정상의 양면 - 어린이다움과 어른스러움 - 을 동시에 그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프로이트가 『쾌락원칙을 넘어서』(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 p.20)에서 어린이의 놀이인 'fort-da'의 틀로 해석할 경우, 이 시는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놀이이자 최초의 차이(어머니의 현존/부재)를 자각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언어에 대한 최초의 인지 단계를 드러낸 시로도 볼 수 있다. 테리 이글튼(김명환 외 공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86, pp.227-9.

대한 인지 단계로의 발전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나'는 아버지로부터 격리될 것임이 암시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어머니로부터의 격리가 아버지로부터의 격리, 아버지의 부재화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이다. 라깡은 인간의 정신구조의 정립에 기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절대적이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있어서 보호기능과 금지기능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다. 금지기능은 외디푸스 콤플렉스 해소 단계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 금지기능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기능의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고 선언됨으로써, 아버지는 보호기능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럼으로써 가난이 찾아오고, 어머니는 아이인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학습의 동인으로서의 불안을 낳게 된 원점(原點)에는 아버지로부터의 격리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격리불안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시의 제2~4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그건 우리 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껏 돌보세요. 나는 사료를 한줌 집어던지면서 가지를 먹어 시퍼래진 입술로 투정을 부렸다. 농장의 목책을 훌쩍 뛰어넘으며 아버지는 말했다. 네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야. 양계장 너머 뜰, 달걀 노른자처럼 노랗게 굵은 달이 아버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이리저리 흔들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팔목에 매달려 휘휘 휘파람을 날렸다. 내일은 펌프 가에 꽃 모종을 하자. 무슨 꽃을 보고 싶냐. 꽃들은 금방 죽어요 아버지. 너도 울음엔 벌써 열 살이다. 어머니가 양푼 가득 칼국수를 떠담으시며 말했다. 알아요 나도 이젠 병아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웬 칼국수에 이렇게 많이 고춧가루를 치셨을까. - 「위험한 家系·1969」 제2장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무엇하겠느냐. 묵은 밭에서 작년에 캐다 만 감자 몇 알 쭈는 격이지. 그것도 대개는 썩어 있단다. 아버지는 삼질을 멈추고 채마밭 속에 밭목을 묻은 채 짧은 담배를 태셨다. 올해는 무얼 심으시겠어요? 뿌리가 질기

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심을 작정이다. 하늘에는 벌써 튀밥 같은 별들이 떴다. 어머니가 그만 씻으시래요. 다음날 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팔꽃 들은 저렇게 오므라들어 잠을 잘까. 아버지는 흙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셨다. 바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 - 「위험한 家系 · 1969」 제4장

인용한 제2, 4장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압도적이다. 그에 비해 인용하지 않은 제3장은 제1장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아버지가 제외된 채, 나머지 가족들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 대화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을 뿐이다. 제2, 4장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압도적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風病 이전의 아버지란 점에서, 시간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복합적 시간 질서에 의한 서술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 속의 현재 시간(3장)과 과거 시간(2, 4장)의 대조는 두 가지 격리 불안이 지니는 의미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것에 해당한다. 현재 시간에 따라 구성된 제3장은 이유(離乳) 체험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한 이후의 어머니의 기능, 현실원리를 아이에게 자각하게 해주는 기능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 기능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2장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너도 올봄엔 벌써 열 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현실 원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 제3장에서는 이것이 모든 형제들에게 적용된다. 제3장에서 큰누이는 이미 성숙한 자, 제2장에서 '네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야.'라고 말하는 아버지처럼 모이를 가져오는 자로서 변화되어 있다. 큰누이에 이어서 제3장에서는 작은누이가 현실원리의 수락을 강요당한다. - '나'는 제5장에서 마지막으로 현실원리를 수락하게 된다. 이것은 형제들의 나이 순(順)이라는 자연적 질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작은누이는 이 수락 직전에 쾌락원리, 본능에 따른 마지막 반항을 한다. '아버지 좀 보세요. 어떤 약도 듣지 않았잖아요. 아프시기 전에도 아무것도 해는 일이 없구. 어머니가 누이의 뺨을 쳤다.'(제3장)에 서처럼, 작은누이는 제1장에서 보인 비아냥거림의 극한적 반응을 보이

다가 끝내는 어머니로부터 육체적 혼육을 경험하게 된다.

이 비아냥거림이라는 반응은 프로이트가 '가족로맨스'에서 언급한 아이들의 공상³¹⁾이 변형된 것이라 하겠다.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겪어야 할 가장 큰 아픔이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 프로이트는 부모와 자식간의 반목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대간 반목은 필연적인 일로서 문명의 발전의 근간이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부모를 '거물(巨物)'로 상상하는 로맨스를 지낸다. 자기 부모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앓을수록 이 로맨스의 힘은 강해지는데, 이 시에서 작은누이의 '비아냥거림'은 가족로맨스가 변형된 '블랙가족로맨스'라 부를 수 있다. 즉, 작은누이는 자기 내면에서는 이미 아버지를 거물(巨物)로서 믿고 있는데 현실적인 아버지는 風病 걸린 아버지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블랙가족로맨스로부터 작은누이를 각성케 함 - 뺨을 치는 행동 - 으로서 성숙하게 만든다. 제5장에 등장하는 작은누이는 성숙한 자, 큰누이처럼 '모이를 주어오는 존재' - '그날 밤 늦게 작은누이가 돌아왔다. 아버진 좀 어떠시니. 누이의 몸에서 석유 냄새가 났다.'로 묘사되고 있다. 작은누이는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로 변해 있다.

작은누이가 블랙가족로맨스를 지냈던 존재라면 '나'는 프로이트가 말한 그대로 '가족로맨스'를 지닌 존재이다. 제2장에서 '나'는 風病 이전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투정 부리는 귀여운 '나'에게 '농장의 목책을 훌쩍 뛰어넘'는 아버지는 나에게 '팔목에 매달려 휘휘 휘파람을 날리게 해주는 거물(巨物)로 형상화되어 있다. 제2장에서 아버지의 발화들, '네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야.' '내일은 펌프 가에 꽃 모종을 하자. 무슨 꽃을 보고 싶으나.' 등의 어조는 이 시의 다른 어떠한 인물의 발화보다도 우원(迂

31) 프로이트(김정일 옮김), 『가족로맨스』, 『프로이트전집9 :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1996, pp.57-61.

遠)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어머니의 노골적인 현실적 발화와는 구분된다. 이처럼 이 시에서 유독 아버지에게 대한 묘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그것도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나'가 아버지에게 대해 동일시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해 준다.

2.4. 성장의 가(假)종결점 : 가족 의식, 정체성, '겨울'의 시간 의식

이제 아버지는 제4장에서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물러난다. 모이를 스스로 찾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그는 뿌리가 뽑혀진다. 제2장에서 아버지는 닭에게 사료를 주는 자, '나'에게 모이를 주는 자, 꽃을 심는 자로서 능동적인 존재이지만, 제4장에서 아버지는 삼질을 멈춘 자, 뿌리가 질기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심을 작정을 하는 패배자로서 비장한 각오에 매달리는 자, 흙 속에서 나온 자로서의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봐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라는 이 비감한 토로는 거물(巨物)의 무너짐을 '나'에게 확연하게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은 아버지가 될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라는 '나'의 발화는 이 요구의 수락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제6장의 마지막은 거물이 무너진 집안에 다가온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나'의 의지의 표명으로 장식된다.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 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오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 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얼음장 위에서도 종이가 다 탈 때까지 네모반듯한 불들은 꺼지지 않았다. 아주 추운 밤이면 나는 이불 속에서 해바라기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을 잤다. 어머니 아주 큰 꽃을 보여드릴까요?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숩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꽃 모종을요.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家系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冬至의 불빛 불빛 불빛. 『위협한 家系·1969』 제6장

‘나는 배웠다’고 말한다. 이 발화 역시 이 시가 성장시임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나’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로부터 꽃 모종을 하는 법,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숴뜨리는 법, ‘부성(父性)의 원리’를 배운 것이다. 부재하게 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이를 주워오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 법을 실천할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빙판 밑으로 푸른 물이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얼음장 위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끝내는 스스로 태양, 불을 닦은 해바라기 씨앗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각오의 피력이다.³²⁾

결론적으로 이 시는 성장시의 원형적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가 보여주듯, 성장시는 정신적 각성의 과정을 내용으로 하며, 일반적인 서정시와는 달리 서사적 질서를 차용하는 시라 하겠다. 성장시의 서사적 질서는 각성의 과정을 상징하는 시간 질서에 의해 구성된다. 이 시에서처럼 성장시는 ‘나’의 정신적 각성의 응결(凝結)을 의미하는 겨울을 종결점으로 하는 시간 질서를 지니고 있는 시라 하겠다.³³⁾ 여기서 겨울은 죽음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탈색되고 생성이라는 상징적 전복의 성격을 지닌다. 발달이 기존의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발달학적 관점에 따르면 ‘겨울’은 성장시의 시간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각성은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사회의 최소 단위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한다. ‘정체성’이란 단순히 ‘자

32) 기형도의 다른 시 『폭풍의 언덕』은 실상 『위험한 家系 · 1969』의 이본(異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의 첫 구절이 ‘이튿날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이고 마지막 구절이 ‘무수한 변증의 비명을 지르는 풀잎을 사납게 배어 넘어뜨리며 이제는 내가 떠날 차례였다.’란 점은 의미심장하다.

33) 이러한 겨울 의식은 기형도 시의 정신 세계에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겨울판화』 연작 7편을 비롯, 『白夜』, 『鳥致院』, 『진눈깨비』,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 『밤눈』, 『폭풍의 언덕』 등이 모두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다른 시에서도 ‘밤’, ‘어두움’, ‘죽음’ 등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그의 시적 세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기self'나 '자아ego'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의 점유에 의해서만 획득되는 것이다.³⁴⁾ 자거나 자아가 개인의 내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정체성은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자기의 확장된 개념이다. 이 시가 보여주듯, '나'는 단순히 내면 의식을 지닌 존재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가 되겠다는 각성, 사회적 역할의 의식적 점유에까지 이른 존재로 변해 있다. 이처럼, 정신적 각성 및 정체성의 획득을 내용으로 하는 시들을 성장시라 부를 수 있으리라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신적 각성은 물론 사회적 정체성의 확보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성장시는 문학교육의 목표³⁵⁾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하겠다.

2.5. 미완결형식으로서의 성장시 : 성장의 내적 모순 - 동일시와 거부

물론, 이 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낸 구조를 성장시의 일반적 구조라고 결론짓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시들을 대상으로 성장시의 구조에 대한 탐색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탐색의 대상으로 다음 절에서는 이상(李箱)과 운동주(尹東柱)의 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험한 家系 · 1969』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 제4장에서 '나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각오를 암시하는 부분인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라는 발화가 지나는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발화는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의 '-시'가 오류에 해당한다.³⁶⁾ 이것은 이 시의 서술주체와 '나'와의 관계를 재고

34) 루이스 브레거(홍강의·이영식 옮김), 앞의 책, pp.424-426.

35) 김대행 외, 앞의 책. 문학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언어 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적 주체성 확립,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 전인적 인간성 함양 등은 서로 병렬적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성장'이나 '개인적 주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장시는 문학교육의 실현을 위한 동인(動因)으로서의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게 만든다. 서술주체는 상대적으로 성인적 의식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에 비해 '나'는 본능적 차원에 갇힌 존재에 해당한다. '나'의 이 발화 역시 이 시의 다른 모든 발화들처럼 서술주체가 '나'인양 발화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화만큼은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이 발화는 시 전체 구조상 의식의 전환점, '나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부분에서 발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의 발화가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의 본능이 서술주체의 의식에 완전히 순화/억압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나'의 본능은 잠복기에 들어간 것일 뿐, 무화(無化)된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이 본능이 튀어나와 서술주체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신적 각성이란 이처럼 본능을 일시적으로만 억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본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에서 비롯한다고 보인다. 아이는 자신이 사랑하고, 필요로 하며,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동일시함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함입(陷入)³⁷⁾한다. 한다.

36) 이 부분에 대해 지정토론자이었던 정재찬 선생님은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 당신(자신)을 옮겨 심으시려고'라고 해석해야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윤여탁 선생님은 이러한 어법이 기독교적 어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형도가 실제로 어린 시절 기독교인이었다는 점 및 다른 시들 - 「포도밭묘지」나 「성탄목」 등 - 에서도 기독교적 사유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공히 이런 관점에 서면, '시'는 문법적 오류로 볼 수가 없다. 이러한 견해들은 작품 해석을 좀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제4장은 아버지, 즉 '거물(巨物)'의 무너짐을 주제로 한다. 그 무너짐의 충격이 강하게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代父 意識'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나의 이 '대부 의식'이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적 심리가 '나의 발화를 흔들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 구절은 아버지의 의식을 '나가 또는 서술자가 추리하여 언표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갈등적 심리가 순간 표출된 것. 그런 것이 문법적 오류의 발화를 무심코 하게 했다는 해석을 취했다. 달리 말해, 이 부분은 서술자나 '나가 아버지의 심리를 추리한 것이 아니라 '대부 의식'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표출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일시는 자기의 성장을 초래함으로써 외적 갈등 - 이 시에서 '나/작은누이와 어머니간의 갈등 - 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만 내면화할 뿐이다. 이 동일시와 갈등의 내면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문법적 오류를 범한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라는 발화라 하겠다. 따라서, 인간의 성장에 관한 시적 변용을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이 내면화된 갈등까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李箱)의 시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성장시의 변증법 - 동일시와 거부의 시적 변용

3.1. 성장의 거부 : 李箱 시의 성장시적 특성

이상(李箱, 1910-1937), 한국 문학사의 가장 원일점(遠日點)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원일점에서 가장 빛나듯 빛나고 있다는 그의 문학은 '한국 문학의 의미망(意味網) 밖'에서 논해지기 십상이었다.³⁸⁾ 이처럼 그의 문학이 한국 문학의 의미망 밖에서 논해졌던 까닭은, 후진적 근대화의 상태에 있던 일제하 한국에서는 박래품(舶來品) 또는 아서구(亞西歐)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 한국 문학의 수준에서는 생경하기만 했던 모더니즘 문학 - 김기림의 시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 그것을 심지어 초극(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위적 실험 문학을 시도한 그의 문학을 '극력 詩學의 세계'로 평가³⁹⁾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의 문학은 문학이 그저 소금장수 이야기이거나 애상적 감상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변적 난해(難解)의 특성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37) 루이스 브레저(홍강의·이영식 옮김), 앞의 책, p.248.

38) 김윤식, 「이상론」, 『한국현대시론비판』, 일지사, 1975, p.51.

39) 김용직, 「이상, 현대열과 작품의 실제」, 김용직 편, 『이상』, 문학과학성사, 1977 : —, 「극력 시학의 세계-이상론」, 『한국현대시사1』, 한국문연, 1996.

이처럼 그의 문학이 난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의 문학이 일상적 생활 세계, 외재적 세계의 사건들 - 그의 소설이 다른 일반적 소설과 판이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 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매체인 언어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문학에서 소재란 실상 媒材인 언어 자체인 것이다. 언어가 문학에서는 의미 전달의 도구일 수 없고 실상은 사물 자체인 것이다. 이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純種韓國人 李箱의 비극이 내재된다. 그는 처음으로 自動詞로 글을 쓰려 했던 것이다."⁴⁰⁾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외적 세계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기의 물질적 근거인 언어 그 자체를 말하려 했기 때문에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의 문학이 이러한 메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문학을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문화적 소비품으로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문학으로 언어에 대해 철학을 해 볼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일반적 독자의 외면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의 극렬한 외면은 그가 『오감도』 15편을 발표했을 때의 반응에서 잘 알 수 있다. 헤겔이 『미학』에서 문학, 특히 시는 예술과 철학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생각하면, 그의 언어 철학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런 요구를 무참하게 묵살했으며, 실상 이 묵살을 문학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애석하기만 하다. 도대체 문학의 기능에 대해 너무나 안이한 능력만을 독자는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으로 철학 하는 것이 그렇게도 주제 넘은 일이란 말인가?' 라고, 살아 있다면 이상은 이런 말 한 마디는 죽히 했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왜 "1930년대의 조선 청년들에게는 기묘한 흥분과 호기심으로서 대환영을 받았던 것"⁴¹⁾일까? 또 1950년대 전후세대에게 이상은 왜 다시 살아났던 것일까? "자꾸만 되풀이해 온 낡은 서정의 세계에 피곤과 염증을 느낀 30년대 조선의 근대 정신

40) 김윤식, 앞의 글, p.51.

41) 조연현, 「근대 정신의 해체-고(故) 이상의 문학사적 의의」, 『문예』, 1949.11. 여기서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4』, 문학사상사, 1995에서 인용.

이 과거의 낡은 서정의 세계에 그대로 안주하기에는 그들의 지성의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관념적으로 고도(高度)해져 버린 그들의 지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의 세계는 좀처럼 구상화되어 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과거에의 경멸과 새로운 것의 조급한 욕구 속에서 발생된 지적 '딜레마'가 이상의 시와 같은 정체를 파악할 길이 없는 일종의 관념의 도본(圖本)에 간신히 자위와 자독(自瀆)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조연현의 해명 및 고은이 『이상평전』에서 언급대로, '최초의 부정정신에 의한 실험문학'이자 '영원한 청년문학'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을 난해의 대명사로만 정위시키는 것은 독자에게 열려진 유일한 길이 아닐 것이다. 그의 문학은 "「신혼여행 갈 때 신랑이 꼭 준비해야 될 약은?」 답은 「배멀미약이다.」 설명이 필요할까?"⁴²⁾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⁴³⁾ 그의 문학에 대해서 난해, 모더니즘, 전위, 실험 등의 어려운 용어를 동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이상의 문학이 '청년의 문학'이자, '성장문학'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상의 시는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 · 1969』의 '나'가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악몽을 수십 번은 꾸고 나서야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결심을 누구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실수를 빈번히 해야만 겨우 말할 수 있었다.

42) 김대행,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92, pp.31-32. 이 부분은 이상의 「家庭」에 대한 해설 부분이다.

43) 물론, 이상의 문학이 난해하다는 점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의 소설을 읽었다는 어떤 국문학과 대학생은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로 구토할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혹시 그는 멀미할 준비를 하고 그의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해 보았다. 결국, 어떻게 읽히느냐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닐까?

이상의 시는 '나'가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⁴⁴⁾

『월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애生:活이모자라니까답이다. 밤이사나운꾸지람으로나를졸른다.나는우리집내』牌 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나는밤속에들어 서서제웅처럼자꾸만滅해간다.食口야封 한窓戶 어데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收入 되어들어가야하지않나.지붕에서리가내리고뽀죽한데는鍼처럼月光이 묻었다.우리집이않나보다.그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다.壽命을혈어서典當舖잡히나보다.나는그냥』고리에쇠사슬늘어지듯매어달렸다.』을열고안열리는』을열려고. -『家庭』(『이상문학전집1』, 문학사상사, 1989)

『위험한 家系 · 1969』의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에는 보호자적 기능을 지닌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역시 '나'에게는 암울한 상황이다.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뽀죽한 데는 鍼처럼 月光이 묻었다.'고 한 까닭이 이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심한 격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인간의 발달 과정에 따른다면 '나'는 이런 상황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나'는 기형도에 비해 더욱 극단적인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서리를 침(鍼)으로 비유한 데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의 극단성은 '壽命을 혈어서 典當舖잡히나 보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정(家庭)은 불행히도 '나'의 피를, 목숨을 요구하는 가혹한 곳이다. 이런 상황 인식은 성장에 대한 거부, 성장과 동시에 가족 내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거부 의식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냥 』고리에 쇠사슬 늘어

44) 이상의 소설 『恐怖의 記錄』 및 수필 『恐怖의 記錄(서장)』, 『恐怖의 城砦』가 모두 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공포의 성채』에 나오는 "한때는 민족마저 의심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변칙임도 여유도 없는 빈상스런 전통일까 하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 가족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는 또 민족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그러나 그것은 어찌보면 '대중의 근사치였나 보다.'라는 구절은 그의 정신적 고뇌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구절이라 생각한다. 『이상문학전집3』, 문학사상사, 1993, p.334.

지듯 매어 달려 있는 것이다. 문이 꼭 닫혀 있어서가 아니라 실상은 그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이미 가장(家長)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집 내 문패 앞에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관례상 '나가 이미 가장임을 알려준다. 아들의 이름으로 문패를 내거는 집은 없으리라. 그런 점에서 이미 '나'는 가장이지만 그것을 버거워 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의 엄격함, 폐쇄성, '나'는 태어난 이상 아버지로서 커가야 하지,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유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작부터 가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의 말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외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 이 조건을 형상화한 것이 「家庭」이라 하겠다.45)

이상의 '나'는 어떠한 상황을 사실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가 책임져야 할 짐을 너무나 거대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울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는나나는왜나의아버지를깡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 『오감도 시제2호』

이상은 그저 실제적인 자신의 아버지만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려 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 되기에서

45)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1988, pp.137-8. "그(이상)는 일체의 전근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역사의 변화에 부응하는 근대적인 인간이 되고자 했다. 그에게 있어 전근대적인 것은 자기에게 몸밖에 준 것이 없으면서도 '양육비 배상'을 요구하는 신당리 빈민굴의 부모와 家父長的인 가족제도와 낡은 역사와 관습이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질곡과 그에 대한 항변은 그의 여러 시작품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대(累代)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 '의식 과잉'은 결국 한 가정 내에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체성을 '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아버지가 조을 적에'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의 '아버지의 ...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 모든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보기에 그가 따를 만한 가치를 지닌 아버지는 부재하는 것이다.

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아이는 태어나 주체로 정립하기까지 첫째, 자신의 몸에 대한 지배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거울단계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의 사지(四肢)가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 '파편화된 육체'라는 악몽에 빠져 있다. 거울 앞에서 움직여 보이며 웃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통쾌함이 주는 웃음이다). 둘째로, 자기의 성(性)을 깨닫게 된다. 이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이다. 남자아이는 (상징적) 남근(男根)을 소유한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선망(羨望)과 함께 그와 동일시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좀더 복잡한 과정, (상징적) 남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비천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욕망하는 어머니 되기를 꿈꾼다.⁴⁶⁾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성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런 과정이 가족의 공간을 넘어서 사회로 확대될 때, 직업(개인 차원) 및 민족 의식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시의 변증법이 내재적으로 허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변증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일시할 대상의 가치의 발견 및 인정의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상은 '아버지의……아버지', 역사로부터 어떠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날개」에서 '十九世紀는 될 수 있거든 封鎖하여 버리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은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암만 해도 나는 십구세기

46) 프로이트(김정일 옮김),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 및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앞의 책 : 아니카 르메르(이미션 옮김), 앞의 책, 제3부 및 제6부.

와 이십세기 틈사구니에 끼여 졸도하려 드는 無賴漢인 모양이오. 완전히 이십세기 사람이 되기에는 내 혈관에는 너무도 많은 십구세기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가 위협하듯이 흐르고 있소그러."⁴⁷⁾라고 고백했듯이,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역사를 부정하는 모더니스트의 포즈는 그가 다닌 경성고등공업학교(서울대 공대 전신)에서 배운 한낱 파편적 지식들의 소산일 뿐, 그를 압도하는 것은 19세기의 도덕성이었다. 그는 식민지에 설치된 전문학교를 통해서 배운 파편적 지식으로는 유구한 역사를 부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1936년 11월 동경행의 동기도 이러한 지향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부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식민지가 아닌,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일본에서 찾아보려 했던 것이다. 동경행이 있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크리스트에酷似한한檻樓 한사나이가있으니이이는 그의終生과殞命까지도내게 떠맡기려는사나오마음씨다. 내時時刻刻에늘어서서한時代나諷辯인트집으로나를 威脅한다. 恩愛나의착실한經營이늘새파랗게질린다. 나는이육중한크리스트의別身을暗殺하지않고는내門闕과내陰謀를掠奪당할까참격정이다. 그러나내新鮮한逃亡이그끈적끈적한聽覺을벗어버릴수가없다. - 「肉親」

이 시는 1936년 10월 4~9에 〈危篤〉이란 표제로 발표된 11편의 시 중 하나로써, 역시 동경행 전후의 내면을 잘 드러내주는 시인 것이다.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는 19세기의 도덕성에 압살 당하는 듯한 내면 풍경을 지닌 존재였는데,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위의 시인 것이다.⁴⁸⁾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한 남루한 사나이, 아

47) 이상, 「사신(7)」, 『이상문학전집3』, 문학사상사, 1993, p.235. 이 편지는 1936년 8~1937.1에 『여성』지에 발표된 편지들 중의 하나로, 일본에 다시 유학가 있던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이다. 역시 이상이 渡日하기 전후의 내면의식을 잘 표백하고 있는 글이다.

48) 이 시와 동일한 주제가 표명된 수필이 유고로 발표된 「失樂園」의 '육친의 장'(『조광』, 1939.2)이다.

버지는 그의 운명까지 내게 맡기려 한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를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끈적끈적한 소리로 '나'에게 달라 붙어 '나의 미래를 차압하고, '나'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기를 요구한다.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사이비 그리스도의 요구이므로 부정할 만한 것이다. 그의 요구는 '나의 새로운 '門'闕과 陰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를 '나가 사이비 기독교'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구의 역사가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논리에 의거한 것이라 하겠다. 식민지 조선에 비해 몇 배의 고도한 근대문명을 이룩한 서구가 일찍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나왔다는 것, 그러한 명백한 근대사에 비춰보면, 19세기를 부정하기 위해 아버지를 '사이비기독교'로 형상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이다. 자주적 근대화를 통해 유교를 부정하는 사례를 제공하지 못한 우리의 빈약한 근대사에서는 부정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상에게 이것은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성장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의 시는 반성장시에 해당한다. 그러한 지향을 담은 시를 쓴 까닭은 첫째로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단적이었던 것,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요구가 '나의 壽命까지 요구할 정도로 마찬가지로 극단적이며 폐쇄적이었던 점 때문이다. 둘째, 동일시할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의 가치를 발견 및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시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심지어는 暗殺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은 새로운 '門'闕을 꾸미고자 '陰謀'한, 모델이 없는 새로운 최초의 아버지가 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반성장시이자 성장시라 하겠다.

3.2. 성장과 동일시 : 尹東柱 시의 성장시적 특성

이상이 자신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보는 데 熱中 - 『거울』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 한 한편으로, 감히 함부로 쳐다보지 못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낱낱을 파헤치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의 襤褸를 발견하고, 사이비기독교로 몰아붙이고, 19세기의 도덕성이 압도하는 자신의 피를 다 제거하여 새 피를 흐르게 하려 했다면, 운동주(1917-1945)는 아버지에 대해 맹목적이었다 하겠다. 여기서 맹목적이란 함은 중의적이다.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실상을 볼 수 없는 맹목(盲目)이었다는 의미와 함께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맹목(盲目)적 동일시이다. 첫 번째 맹목은 그의 『서시』에 뚜렷이 나타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피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상이 해피한 언어(『오감도 시제4호』를 비롯 『삼차각설계도』 등)로 시를 쓸 때, 운동주는 아주 낡은 언어를 갈고 닦고 있었다. '죽는 날까지 ~ 부끄럼이 없기를'이 유교 경전(『孟子』盡心章의 '仰不愧於天 俯不炸於人')에서 비롯한 표현이란 사실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운동주는 이상을 압도하던 19세기의 도덕성을, 썩은 피로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파란 녹이 긴 구리겨울 속에/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이다지도 욱될까"라고 하면서도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참회록」) 쓰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욱된 유물이고 얼굴이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봉건 조선의 이념적 근간인 유교가 환골탈태(換骨奪胎) 없이 20세기에도 보편적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맹목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운동주는 - 부끄러움 없이 - 그러한 맹목을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비장하게 선언하는 것은 그러한 맹목의 이행을 말한다.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 · 1969』에서도 나타나듯이, 성장시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 겨울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성장을 위한 자기 결의(決意)의 순간으로 바꿀 때에만 정상적인 성장의 엔

진이 돌아갈 수 있다. 운동주는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엔진에 에너지를 장전하고 있다. 하필이면 그는 왜 '바람이 별을 스친다.'는 능동문을 구사하고 앉고,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피동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의 문장은 객관적인 묘사문에 지나지 않는다. 시의 서술자는 물론 독자 어느 누구에게도 이 문장은 겨울의 실존적 느낌을 전할 수가 없다. 겨울을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그 느낌의 실존적 두께를 전하기 위해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피동문, 그러나 겨울 한 복판에 있는 주체의 느낌을 능동적으로 전달하기에 더 적합한 표현으로 겨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시』의 주인공 '나'는 '구리거울'을 지닌 '나'이다. 이상의 '거울'은 '나의 분열까지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울이었음에 비해 운동주의 거울은 '나의 실상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나의 길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가 서 있는 이상, 李箱의 거울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맹목(盲目)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맹목(盲目)이 있기 때문에 이상처럼 문고리를 잡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비극을 초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극을 초월한 지점에서 천·지·인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시』의 제1연은 지상의 인간이 지상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길을 가겠다고 함으로써, 내면적 분열을 지양하며 인간과 지상과의 분열 또한 지양한다. 제2연에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한 표현은 지상에서의 인간의 상황(앞새에 이는 바람)에 대한 반영이자, 천상의 것(별)과 지상의 것(나)이 동일화되는 세계를 보여준다. 제2연의 '별'은 이 시의 '나'인 것이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표현함으로써, '나의 위기 상황의 실존적 느낌을 표현함과 아울러 '나'-'지상(역사)''-'천상'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조화의 성취란 맹목적인 시야에서 나온 것이므로 기원(祈願)이자 희망이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겠다'는 인간적 결의 이상이 필요한 극한의 상황이었다. 그러한 극한적 희생이 필요함을 운동주가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 「십자가」이고 또 「간(肝)」이다. “피로웠던 사나이,/행복한 예수·그리스도에게/처럼/十字架가 허락된다면//모가지를 드리우고/꽃처럼 피어나는 피를/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조용히 흘리겠”라고 하는 각오의 피력은 『서시』에서의 의지 표명보다 구체적이며, 아버지를 ‘사이비기독교’로 모독(冒瀆)한 李箱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의 표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태도의 표명이 『서시』의 두 번째 맹목(盲目)의 발전적 형태란 점은 중요하다. 이 두 번째 맹목은 첫 번째 맹목에서 연유하여 발전된 것, 낡은 언어를 버리지 않고 따르는 태도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습한 肝을 피서 말리우자.//코카사스 山中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둘러리를 빙빙 돌며 肝을 지키자.//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아/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너는 살지고/나는 여위어아지, 그러나.//거북이여!//다시는 龍宮의 誘惑에 안떨어진다.//푸로메디어쓰 불상한 푸로메디어쓰/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끝없이 沈澱하는 푸로메디어쓰. - 「肝」

주지하듯, 이 시는 한국 고전 문학인 토끼전을 재맥락화한 것⁴⁹⁾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주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서시』나 『간』에서처럼 낡은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낡은 언어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말이자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이다. 운동주는 결코 이들이 낡고 욕된 왕조의 유물이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李箱이, 근대적 교육 기관에서 배워온 말로 시를 썼다면, 운동주는 아버지가 물려 주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로 시를 쓸 수 있었다는 데에 둘 간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과거로부터 이념적 지표를 발견,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도 『서시』에서처럼 유교적인 차원에 국한

49) 김홍규, 「운동주론」, 『창작과비평』제33호, 1974.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독교적 윤리관, 『간』의 그리스 신화에까지 광대하다. 여기서 운동주의 시를 성장시라 할 때, 그것이 지니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운동주의 시는 동일시에 의한 성장시인 것이다. 그는 윤리적 도덕적 이념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길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및 프로메테우스와 동일시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동일시에 의해 성장의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 그가 점유하고자 한 정체성, 사회적 역할의 성격은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1969』의 가족 내적 역할, 李箱의 '아버지의...아버지'의 역할보다도 넓고 견고한, 성장의 극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성장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지금까지 필자는 문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학습 독자의 공감 획득 위기'와 관련하여, 성장소설이 지니는 공감성에 비견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시로서, 성장시의 범주 설정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가에 관하여 논하였다.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1969』를 성장시의 원형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볼 때 추출할 수 있는 성장시의 양식적 특성은 첫째, 본능적 차원의 주인공과 그것을 정직하게 살펴보려는 태도를 지닌 서술자가 존재하며 둘째, 주인공은 불안 의식을 각성의 계기로 하여 의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며 셋째,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 내에서의 역할을 비롯,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장의 종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 성장시는 정신적 각성의 서사적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성장시에도 내적 모순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 내적 모순이 증폭되어 외재화할 경우 반성장시(反成長詩)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념적 지표에 의해 각성의 계기가 견고화될 경우, 운동주의 시에서처럼 이념적 동일시에 의한 성장시가 쓰여질 수 있음을 밝혔다.

성장시는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 중인 학습자의 정신 세계, 내적 갈등의 특성들을 공유한 주인공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은 끊임없이 성장 과정 중의 수많은 갈등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예 중의 하나가 가족 내에서의 역할 의식 및 사회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의식, 정체성 획득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갈등들이 학습자들의 내면 풍경을 지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때, 성장시는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기능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성장시는 학습자들의 공감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장시는 부모로부터의 격리 불안에 의해 정신적 각성이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성장과 발달이란 기본적으로 아기로부터 어른으로의 길을 가는 것이며, 그것의 기본이 독립적 주체로서의 자기 정립이다. 이 자기 정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지의 확립에 성장시가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성장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경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의 끝에 도달하게 하는 데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은 정체성 획득에 의해 종결되는데, 성장시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의 일구성원으로서 점유하게 될 역할이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정체성 획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성장시는 학습자들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시할 가치를 지닌 모델의 제시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나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제와 연관된다고 하겠다. 이상(李箱)의 시는 전통적 문화를 부정하는 토대 위에 스스로 새로운 주체가 되는 길을 밟고자 하는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상(李箱)은 이미 전후 세대 이후 한 전통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상은 반성장시이자 성장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변증적 과정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육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운동주의 시들은 보편적 이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성장시라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보편적 이념이 성장의 가장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한 이념이 한편으로는 맹목적 태도를 낳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성장문학에 대해 그 가치를 폄하하는 입장은 그것이 독일의 시민 계층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성장시는 '철 드는 것'과 관련된 시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반성 없는 내면화를 지향할 때 한계를 노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각성이라기보다는 주입에 가깝기 때문이다.

성장시 자체가 지니는 이러한 교육적 의미와 아울러, 성장시적 관점이 현대시 읽기 방법상의 다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운동주의 시를 모더니즘시, 저항시와 같은 관점에서 읽는 방식은 문학사적 의미망 안에 속한다. 그러한 문학사적 의미망은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문학 연구라는 학문적 제도적 논리 체계가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학사적 의미망이 학습자의 정신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문학교육적 논리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이지니는 문제점을 노정할 수 있다. 이상과 운동주의 시를 '모더니즘시', '저항시'라는 관점에서만 교육하는 것은 문학사적 지식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며, 그러한 지식은 이상과 운동주의 시가 지니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의미체계를 생성시키는 자아 형성 과정'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⁵⁰⁾ 성장시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아 형성 과정을

50) Henry A. Giroux, 「새로운 교육과정의 사회학」, 한준상 외 공역, 『교육과정논쟁-교육과정의 사회학』, 김문당, 1998, pp.120-123. 전통적 교육과정 모형에서 지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관은 상호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고에 기여하는 수직적 교실 사회관계를 동반한다. 전통적 교육과정 모형에서는 학습이 아니라, 통제가 우선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문학사적 의미망에서 강조되는 문학사적 지식들이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편적 지표로서 활용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자주 언급된 점이기도 하다. 물론 문학사적 지식의 교육적 효용

중심으로 시를 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성장시적 관점은 학습자들에게 시를 지적 학습의 대상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적 내면 풍경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성장시 및 성장시적 관점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니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의 유관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의 변증법, 李箱의 길과 尹東柱의 길의 변증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증법은 정신적 성장의 변증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
김대행(1992),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
김병익(1981),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 『세계의문학』, 여름호.
김수영(1981), 『김수영전집2』, 민음사.
김연순(1982), 「독일교양소설연구(1)」, 『독어독문학』 제17호.
김용직(1996), 『한국현대시사2』, 한국문연.
_____(1977)편, 『이상』, 문학과지성사.
_____(1996), 『한국현대시사1』, 한국문연.
김윤식(1981),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_____(1985), 『한국현대시론비판』(중판), 일지사.
_____(1984),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_____(1992), 『운명과 형식』, 솔.
김준오(1990), 『시론』, 삼지원.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겠으나, 그러한 지식이 학습자의 정신적 성장에 필수적인가 하는 점은 해명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뚜렷하게 해명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교육되는 것은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모형이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 김홍규(1974), 「운동주론」, 『창작과비평』 제33호.
- 서준섭(1988),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 윤여탁 외(2002),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제2판), 태학사.
- 윤여탁(2003),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
- 이경호, 「기형도의 시세계 연구자료 읽기」,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솔.
- 조연현(1949), 「근대 정신의 해체-고(故) 이상의 문학사적 의의」, 『문예』.
- 조화태 외(1994),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p.35
- 최원식(1993), 「아버지의 역사에서 아들의 현실로」, 김하기 『항로 없는 비행』 해설, 창작과비평사.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 최재서(1936), 「'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리얼리즘의 擴大와 深化」, 『조선일보』, 11.31-12.7.
- 최현주(2000),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담론 특성1」, 『한국언어문학』 제44집.
- 황국명(1999),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정치적 환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5집.
- Breger, L. 홍강의 · 이영식 옮김(1974),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 Eagleton, T. 김명환 외 공역(1986),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 Evans, D. 김종주 외 옮김(1998), 『라깅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 Freud, S. 김정일 옮김(1996), 「가족로맨스」, 『프로이트전집9 :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 Freud, S. 박찬부 옮김(1997),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 Giroux, Henry A. 「새로운 교육과정의 사회학」, 한준상 외 공역(1998), 『교육과정논쟁-교육과정의 사회학』, 집문당.
- Lemaire, A. 이미선 옮김(1994),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초록〉

현대시교육과 성장시(成長詩)

남 민 우

문학교육 제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에 대한 지적 탐구 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언어능력의 증진은 물론 정신적 성장을 자극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제재가 흥미유발에 기능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문학교육 제재들은 이러한 면에서 비기능적이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학교육 제재들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까닭은 문학사적·문학이론적 관점에서 제재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의 제재들은 문학연구 담론들이 가치 있다고 평가한 작품들에 한정되어 옴으로써 시대적으로는 1930년대 작품들이, 내용상으로는 학습자들의 내면세계와 거리가 먼 작품들이 지배적이었다.

본고는, 학습자들의 정신적 발달 단계와 조용되는 작품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신적 성장 과정을 시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을 성장시(成長詩)로 규정, 그러한 작품들의 구조와 문학교육적 의미를 논하였다. 본고는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1969』가 성장시의 원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으로부터 성장시의 양식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성장시는 첫째, 본능적 차원의 주인공과 그것을 정직하게 살펴보려는 태도를 지닌 서술자가 존재하며 둘째, 주인공은 불안 의식을 각성의 계기로 하여 의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며 셋째,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 내에서의 역할을 비롯,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장의 종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 차원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장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점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성장시이다.

성장시는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 중인 학습자의 정신 세계 및 내적 갈등의 특성들을 공유한 주인공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신 분석학에 의하면, 개별적 자아가 정립되는 초기 국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거울 단계'이다. 살아가는 전 과정 속에서 자아, 생명 혹은 의미를 찾는 아동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에 자기애적인 리비도를 부여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학습자 역시 자기와 유사한 것을 보여주는 것에는 강렬한 정신적 힘을 투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장시는 문학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성장시는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유발에 기능적일 수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작품 범주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작품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핵심어】 학습자의 동기유발, 성장시, 동일시와 거부, 성장의 변증법, 문학작품의 거울 기능

<Abstract>

On the Literary Education Meanings of 'Bildungspoem'

Nam, Min-woo

The literary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functional at motivating learners' interests in literary works and let them discover the principles of life through them. But present literary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are not functional. Most of all, that's due to the logic of literary scholarship over the procedure of selecting materials in literary education. Literary educational materials consist of works written in 1930s, most of them are far away from the experiences of contemporary learners. It has made the crisis of learner' empathy with them in literary classroom.

This essay suggest the 'bildungspoem' as new literary teaching materials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Bildungspoem corresponds to the spirit and psychology of learners as it shapes internal landscape of the spirit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mature being. According to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a child pays strong attentions to the mirror because it reflects the specular image similar to himself. Bildungspoem plays the role as a mirror in literary classroom. In other words, it motivates effectively the interests of learners in literary works because it reflects the specular image of spiritual development progress of person.

Bildungspoem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includes character of instincts, and a narrator who always keeps eyes to him. And it's character experiences the spiritual development thorough the anxiety about depending from his parents. Human is destined to experience the dependency from his parents, its necessary path makes human spirit suffer the anxiety. But its path make human as mature being. Third, it shapes the stage of having social identity of the character. So bildungspoem shapes the progress from instinct to social identity.

Literary education should take care of the spiritu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learners. Therefore, it should present the literary works which have characteristics similar to learner's. Bildungspoem is a kind of them, so it has the possibility to resolve the crisis of literary classroom.

【key word】 motivating interests of learners in literary works, bildungspoem, identification and anti-identification, dialect of spiritual development, mirror function of literary works